

정보화란 말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주는 편리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의 정보화 시스템은 기업이윤 창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육, 문화, 종교 등 어느 분야도 이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세상의 흐름이 불교와는 무관한 것일 수는 없다. 불교는 성불이란 궁극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신세계에 대한 측

면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종교로서의 가르침이 배제될 수는 없다. 생활의 수단 내지는 도구에 대한 감각이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사회적 정진문화를 앞서갈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자리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가 거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보화 사회라는 패턴 역시 불

소극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해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과연, 한 달 동안 전국의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이고 그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고 보니 불교계의 정보화 적응지수는 모든 면에서 낮은 수준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 어떤

진행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의 보고서는 불교계의 정보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빠르게 실행되어 전법의 훌륭한 도구로 되고 대중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왔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주최한 단체들이 불교정보화협의회

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개별 사찰과 포교당, 소속 단체들이 컴퓨터를 쓸 줄 모르든 그 생각은 공익수익에 얽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다 좋은 기종의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종단이나 단체들이 공동구매 형식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컴퓨터의 보급률이 절반 수준이란 심각성을 먼저 극복하고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사찰 운영 주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까지의 사업만 성공해도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반을 토대로 종단별 혹은 불교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콘텐츠들이 개발 보급된다면 불교는 사회의 정신과 기술적 흐름을 선도해 가며 인간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든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가 발전의 축을 형성하리라고 믿는다. 물론 그 축에서 벗어나고 싶은 종단이나 단체는 없을 것이다. 이제 불교계 전체가 정보화 사회가 주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작업에 불교계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때다.

“수행·전법원칙 발전안 수립”

대운사 제 19대 주지 추대된 도형 스님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운사는 5일 보현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제19대 주지에 도형스님(대운사 강주)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도형스님은 60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법어사 종강, 강주 등을 역임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됐는데 소감은. “그동안 대운사는 조실 천운스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사는 최근 지역포교에 나름대로 전념하여 교구에 3개의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지역기반을 회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교의 새로운 형태로써 주삼수련회인 ‘새벽숲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한단계 발전시켜 능촌과 도서지역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대운사는 조선불교연구원을 두고 조선불교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연구계획이 있다면.

“현재는 자료 축적 단계에 있으며, 위촉된 연구위원들이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올해 조선불교 연구총서 제1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조선불교연구원은 ‘승유역불’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된 조선시대 사상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상은.

선·교 아우른 도량... 강원 활성화도

서남해안 불교의 중흥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불조의 혜명을 이고 대중을 시봉하는 마음으로 소임에 임하겠다.”

◆대운사 발전을 위한 구상은. “수행과 전법은 사찰운영의 기본축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교육·문화·포교·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또한 서산대사 이래 13대종사와 13대강사를 배출한 전통을 계승, 선교를 아우른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조계종은 교구 개념이 약하다. 본사가 교구지역의 수행과 포교, 선행, 사회관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단위 사찰의 개념으로 본사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은 대운사를 중심으로 교구말사의 모든 종교적 기능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련 전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도형스님은 대중의 화합과 화목, 합심을 강조하고 “대중이 하 나된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고, 대운사를 선·교 중심도량, 수련전문도량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 대운사 = 박봉영 기자

정보화세상 불교계가 선도해야

사찰운영 주체들 교육 포괄시스템 필요
불교전체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보급도

교와 괴리될 수 없다. 오히려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장단점들을 검토해 바른 정보화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에 소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계 언론사가 공동으로 불교정보화실태조사를 한 이유도 바로 불교의

일을 어떻게 해야 불교가 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민족종교로서의 자리를 지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여러 종단이 나름대로 정보화 전략을 세우고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들이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미래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 없이 단발성으로

를 구성해 각종 연구와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반길 만하다. 이제 불교계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 공동이익을 담보하는 공익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 사업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겠지만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포교 효과를 극대화 하려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정도의 쉬운 기술이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찰의 PC 보급률과 홈페이지 운영 통계는 정보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보화는 사무 자동화를 거쳐 생산자동화로,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제조업에서도 이제는 생산 공정의 대부분을 로봇과 컴퓨터 제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인 공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의 보급으로 컴퓨터는 단순인 인력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어가는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2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PC는 1천 8백만대이고 이중 1천 1백만대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수를 1천 2백 95만 가구로 본다면 88%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사찰의 홈페이지 운영 비율은 13.3%로

사찰들 인터넷활용 리더역을

정보전쟁서 다른 종교단체들에 밀리면
일반인 포교·흡인력 크게 뒤질 가능성

대단히 낮은 수치다. 향후 불교를 접하고 불자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잠재 불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찰의 홈페이지 운영 미흡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종단이나 교구 본사에서 말사의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도와주는 거시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실습을 통해서 자신의

사이버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옮겨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보급계산이나 장부정리, 고객 DB구축과 같은 단순한 사무 자동화기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츰 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서 전사적관리(ERP)와 지식관리 시스템(KMS)로 까지 발전해왔다. 대부분의 생산 작업을 인력에 의존하던

사찰들은 컴퓨터를 아직은 기존의 수작업을 대신하는 ‘사무 자동화 기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제 불교사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불교 사찰의 역할이 일반 대중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커뮤니티의 리더역이 아니라 개인 신앙을 위해 단순히 모임의 장소를 제



홍파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관음중 총무원장



불교정보화
특별기고



최종욱

상명대 교수
정보통신학부

이번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들은 불교계의 정보화, 특히 인터넷 사용 수준이 우려할 정도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불교 사찰의 주요 임무가 사찰의 운영이나 포교 보다는 정진과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정보화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은 41.7%로 한국 일반 가정의 보급률

대한불교 총화종 현해탄 수륙대재 및 일본 성지순례 행

귀의 삼보하옵고

녹음이 무성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본종대덕 큰스님과 종도스님께서는 법체 강령하시며 아울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두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총화종에서는 전 종도와 전국 불자님을 모시고 현해탄 선상에서 선망 부모와 세계 제 2차 대전당시 산화하신 유주 무주 고충현도 수륙대재 및 일본국 성지순례를 9월 28일(3박 4일간) 봉행키로 하였습니다. 공공간 다망하시더라도 무무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의 극락 정토왕생과 누굽의 업장소멸을 기원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9월 28일 - 10월 1일(3박 4일)

- 신청마감 : 8월 31일까지(1,000명 선착순)
- 참가비 : 50만원(1인당)
- 접수처 : 총화종총무원 031-592-8891 및 전국교구총무원 (주)주원항공 02) 733-29999
- 이용배편 : 카멜리아 ● 총화종인터넷 : www.chong Hwa Jong.org

◆ 여권 발급신청 : 시, 군, 읍, 면 등에서 신청하십시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 칼라사진(여권용) 2매(사진뒤에 본적 및 전화기재)

◆ 일본 비자서류(비자신청비 : 10,000원)

- 공통서류
 -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 사진1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사업가가 아닌 분은 보증인 1명 선정)
- 직장관계서류
 - 제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60세 이상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 일 자 | 도시명 | 교통편 | 시 간 | 주요 행사일정 |
|----------------|------------------------|--------------|-------------------------|--|
| 제1일 9/28(토) | 부 산 | 카멜리아 | 15:30 17:30 18:00 | 부산중앙종교 국제 여객부두 1층 집결, 승선수속완료 석식, 부산양종발 - 일본 후쿠오카 발발 수륙공 영가천도대재 |
| 제2일 9/29(일) | 후쿠오카 구마모도 아소, 빗부 | 전용버스 | 08:40 전 일 20:00 | 신내조식후 아소, 후쿠오카행 도착 구마모도 이동 아소산 분화구 관광후 빗부로 이동 호텔숙(온천숙) HOTEL : 스키노이 특급호텔 |
| 제3일 9/30(월) | 빗 부 후쿠오카 | 전용버스 카멜리아 | 전 일 17:00 19:00 | 호텔조식후 아생동물원, 지옥온천순례, 남장원 발발 남장원 방문후 후쿠오카 부도로 발발, 신내식사 부산행발 중 신내에서 외항법회 |
| 제4일 10/1(화) | 부 산 | | 08:40 09:30 | 기상후 신내조식, 부산행 입국 지정된 전용버스에 승차, 각 사찰로 발발 |

大韓佛敎 總和宗 총무원장 전남정 합장